

한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동일한 풍습

한민족은 고대 이스라엘 12지파 중의 하나이면서, 성경 역사에서 사라진 단지파 민족의 후예라는 것을 성경 역사적으로 두 민족의 동일한 문화풍속과 유물유적, 유사 언어 사용 등에서 알 수 있다.

①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당시 양(羊)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액(厄)을 면했다(출애굽기12:21)고 해서 유월절(Passover) 풍습으로 대대로 지켜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에 이스라엘의 12민족 가운데 단민족이 이스라엘 소라 성읍에서 동쪽으로 이주하여 한반도에 와보니 양이 없으므로 양의 피 색깔과 비슷한 팔죽을 썬서 동짓날에 문설주에 바르는 것으로 유월절(Passover) 풍습이 변모된 것이다.

② 제사의식에서도 두 민족은 높은 산에서 돌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다(창세기 22장, 타민족은 이런 풍습이 없다). 또 단민족이 흰 두루마기를 즐겨 입어 백의민족으로 불렸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흰옷 입기를 좋아했다고 기록되어 있다(행1:10, 막16:5, 계7:9). 가계혈통적인 측면을 보면 두 민족 모두 본처 장자가 상속을 하였다(창세기 17:19).

③ 이스라엘에서 제사 지낼 때 향을 피

우고 사람이 죽으면 굶은 배움을 입고 "아이고 아이고" 곡(哭)을 하는데(창세기 37:34), 한민족의 풍속과 똑같다.

④ 음식을 살펴보면 단민족은 향어회를 즐겨 먹었고 첫 음식을 신성시 여겼다. 그리고 추수감사제를 지내며 부추김치와 매운 음식을 즐겨 먹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이스라엘 잉어를 먹고 첫 열매, 첫째 짐승을 신성시 여겼고 부추김치와 파와 마늘과 같은 매운 음식을 즐겨 먹었다(민수기 11:5).

⑤ 한민족의 고대 언어가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했던 고대 히브리어다. 그 예로 아직도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용어 중 예기, 예비, 예미 등의 의미가 같고 실로, 고시레, 꼭두각시 등의 용어가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음을 보아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다. 특히 대동강변에서 출토된 기와정이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그 기와장와 당에 고대 히브리어가 써여 있다.

⑥ 신성불가침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선출되는 레위지파에 의해 다스리지는 도피처(민35:9-28, 신19:1-13, 수20:1-9)와 고조전의 소도(蘇塗)문화가 같다. 종교적으로 신성한 곳이기에 때때로 정치적으로 간섭받지 않는 치

외법권 지역이며 사회적으로 살인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잡아갈 수 없는 곳이었다.

⑦ 우리나라 민족이 이스라엘 원족이다. 현재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키가 정대처럼 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족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히틀러, 무솔리니 등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조리 붙잡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한번에 육백만 명씩 죽였던 것이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키가 작고(민수기 13:33) 짐승들이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다가 죽였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죽기 위해서 키가 큰 아라비아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키가 큰 자식들을 낳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가 왜 크냐 하면 혼혈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단일민족으로서 이제 피가 섞이지 아니한 진짜 이스라엘 민족은 한국사람밖에 없다. 하 나님께서는 마귀가 앞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죽일 우려가 있는 걸 내다보시고 단지파를 동북쪽으로 이주시켜어 한국 땅까지 이르러 살게 했던 것이다. 이것은 바로 구세주가 나올 민족(창49:16)인 고로 구세주가 나올 민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국 땅(사41:1-9)까지 보낸 것이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과학자들이 이 사람 말씀을 따라온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와 내가 없는, 인간 전체가 한 사람 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세상이 되면 어떤 세상이 되겠는 지 상상해보라. 너와 내가 없는 세상은 국경이 필요 없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전체가 하나가 된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는 데도 이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너와 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척은 사람이다. 전 세계가 점차 이 사람의 말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최첨단 과학자들이 이 사람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실험을 통해 증명하면서 계속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고관절을 부드럽게 하체를 튼튼하게

척추와 골반의 균형을 맞춰 엉덩이 근력과 선을 아름답게 만들어볼까요

주의: 무릎이 너무 나가지 않도록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구부린다. 반대쪽 다리는 스트레칭 되도록 무릎을 펴서 발바닥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전사 자세, 전사 확장자세~

동작①: 서서 어깨너비만큼 양다리를 앞뒤로 확장하고 선다. 양손을 옆구리에 붙인다.



동작①

동작②: 양다리를 직각으로 구부린다. 양손을 앞무릎위에 얹는다. 골반을 바닥으로 내려, 다리는 쪽 퍼서 스트레칭되는 것을 느끼며 10초 유지 후 숨을 내쉬며 일어나서 처음으로 돌아온다. 좌우 교대로 3세트.



동작②

동작③: 선 자세에서 어깨너비만큼 다리를 옆으로 확장하고 오른쪽 발끝을 90도로 쾰준다.



동작③

동작④: 양손을 합장하여 앞으로 쾰 쾰 쾰 준다. 왼쪽 다리를 가볍게 내려 90도 각을 이루고, 오른쪽 다리를 쾰 쾰 쾰, 골반을 바닥으로 내려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끼며 10초 유지 후 숨을 내쉬며 처음으로 되돌아온다. 좌우 번갈아 3세트.*



동작④



격암유록 新해설 수정판 제6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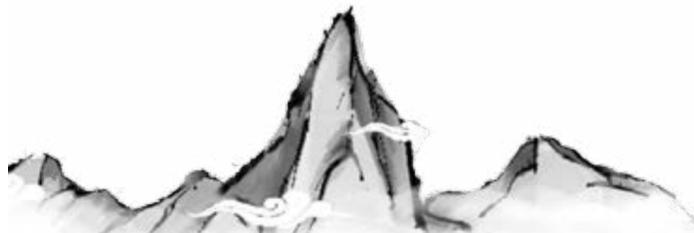
때가 오면 운이 열리니 중입의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심승 정도령을 찾아오소

格菴歌(二) 격암가사

道合天地天道降生(도합천지천도강생)
승합 今日大道出(합덕금일대도출)을
有名學識英雄(유명학식영웅)으로
科擧(과학)의 열인 丈夫(장부)
機械發達(기계발달)되던날
天文地理達士(천문지리달사)덜도
時言不知非達士(시언불지비달사)요
各國遊覽博識哲人(각국유람박식철인)
時至不知非哲(시지부지비철)이요
英雄豪傑(영웅호걸)제자(제자)랑도
方農時(방농시)를 不知(부지)하면
農事力(농사력)이 不足(부족)이라
愚夫愚女(우부우녀)명충(명충)인도
知時來(지시래)이 英雄(영웅)이요
高官大爵(고관대작)호걸(호걸)들도
知時來(지시래)이 傑士(걸사)라네

도는 천지를 하나로 합하는 도인즉 천도가 내려남이니 오늘날 천지합덕(天地合德)하는 무극대도가 나왔도다. 유명한 사학식이 있는 자 영웅과 같은 사람과 과학자들 때문에 기계문명이 발달되었는가? 천문지리에 통달한 선비들도 때를 모르면 천지의 이치에 통달한 선비라 할 수 없고 여러 나라를 둘러보고 공부한 철인(哲人)이라도 때(심승 정도령)이 와서 천지개벽하는 때가 이르렀는데도 모르면 철인이라 할 수 없고 영웅호걸이 자기 자랑하지 마 농사지를 때를 모르면 농사력이 부족하여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느니라. 배운 것 없어서 여러척은 사내와 여자들과 맹충이 같은 사람들도 그때가 왔음을 안다면 영웅이라 할 것이요. 고관대작 호걸들도 때가 왔음을 안다면 걸출한 선비라 할 것이니라.

春情(춘정에) 잠을 들어
一夢(일몽)을 깨들으니



牛鳴聲(우명성)이 낭자로다
自古及今(자고급금) 살핀 마음
道道聖人一字(도도성인일자)이네
無疑(무의)하니 자세토소
自初其時(자초기시) 피는 법이
自靜出(자정출)이 震動(진동)이요
無靜出(무정출)이 妄動(망동)이네
隨時變易(수시변역)이 從道(수시변역)이중도)를
誰是不知不從道(수시부지부중도)요
一字(일자)일이 變易(변역)언변역)이
隨時言(수시언)이 아니던가
時至無疑(시지무의) 일러주니
時言明(시언명)을 듣고보소
大道出明(대도출명)되는 法(법)이
時來運數(시래운수)시정)이네

춘정(春情)에 잠이 들었다가 한 꿈을 깨고 나니 소 울음소리가 낭자하구나. 예부터 지금까지 모든 도와 성인이 살핀 것은 마음 심(心)자 하나로다. 의심할 것 없으니 자세히 들어보소 처음부터 피는 법이 고요한 가운데서 진동(震動)함이 고요함이 없는 가운데서 나오면 망동(妄動)이니라. 때(천지 도수)에 따라 역(易)이 바뀌니 이러한 이치에 따라 도를 따라야 하는데 누구든지 이러한 이치를 모르면 도를 따를 수 없느니라. 마음 심(心)자 한 자(字)의 일이라는 것이 역(易)이 변한다는 말인데 이는 때(천지 도수)에 따라 변한다는 말이 아니던가? 때가 이르러 의심 없이 일

리 주니 때에 관한 분명한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소. 무극대도(불사영생의 대도)가 나와서 세상에 밝게 드러나는 법은 때를 따라 도래하는 운수와 그 시기가 정해져 있느니라.

大道春風(대도춘풍)부는 氣勢(기세)가세
大一出(대일출)관(관)아니려나
時言天運(시언천운)仔細(자세)사(사)인천운명(사)제(제)하(하)니
忽覺(혹각)精神(정신)不忘(불망)강(강)장신(장신)불(불)망(망)하고
時至運開(시지운개) 때를 보아
中入十勝(중입십승)차자(차자)토소
順天順天(순천순천)차자(차자)오소
知知白白(지지백백)이 上白(상백)이네
天下第一(천하)中原國(중원)이
不(不)一(一)而(而)불(불)일(일)화(화)이(이)되(되)던(던)날(날)가
無(無)知(지)하다(하다) 嘲(조)笑(소)야(야)
至(至)公(공)無(無)私(사)지(지)공(공)무(무)사(사)하(하)나(나)님(님)은
厚(후)薄(박)간(간)에(에)다(다)오(오)라(라)네
成(성)就(취)根(근)本(본)성취근본)알고(알고)보면
從(從)虛(허)實(실)이(이) 出(출)-(출)일(일)이라
以(以)南(남)以(以)北(북)是(是)何(하)言(언)(언)이(이)남(남)이(이)복(복)사(사)하(하)고(고)

露米相爭必有(로미상쟁필유)은
四海萬姓(사해만성)사(사)해(해)만(만)성(성)
우리(우리)兄弟(형제)
同考祖之子孫(동고조자사손)으로
그(그)력(력)에(에) 怨(원)讐(수)린(린)고(고)

무극대도의 춘풍이 부는 기세가 일대 장관이 아니더냐? 때에 관한 말씀인즉 하늘이 정한 운수와 명수(命數) 즉 생사 존망(生死存亡)에 관련한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니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잊지 말고 때가 오면 운이 열리니 그때를 보아 중입의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심승 정도령을 찾아오소. 하늘의 뜻을 좇아 정도령을 찾아오소. 양백 정도령을 아는 것이 심승을 가장 잘 아는 것일세. 천하제일 중원국 즉 전 세계의 중심국이 될 우리나라가 하나로 화합이 안 된단 말인가? 무지하다 비웃는 자들아! 지금이 공평무사한 하나님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오라고 하시네. 세상만사의 성취 근원을 알고 보면 허(虛)와 실(實)이 다 하나에서 나왔음이라. 이남 이북이 무슨 말인가? 소련과 미국이 서로 싸운 결과 필히 혼적을 남겼기 때문이니라. 사해(四海) 만민이 다 우리의 형제요 한 조상의 자손인데 그렇게도 원수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박명하 / 고서연구가
(010-3912-5963)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 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진리 | 하루 24시간의 십일조 전도 문답 [38]

질문: 다니엘서 12장에 "매일 드리는 번제를 폐하면 멸망을 받으리라"고 했지만, 직장인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단에 나와서 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 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답변: 신앙인이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십일조라고 합니다. 헌금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기브엔테이크(Give and Take)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 먼저 나의 생명과 같은 헌금을 바치니 이에 따른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축복이 '말라기 3장 10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고 했습니다.

이간자 구세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충성을 기울이는 승리 제단 식구는 당연히 축복을 받지만, 심지어 교회에 나가는 교인들이 헌금을 해도 부자가 많은 것도 십일조를 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십일조의 헌금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져준다면, 십일조의 시간은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질문: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십일조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답변: 하루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24시간이요 하루를 분으로 계산하면 1시간이 60분이니까 60에다가 24를 곱한 1,440분이 나옵니다. 하루 1,440분의 십일조는 144분(=2시간 24분)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하루 십일조의 시간=2시간 24분>을 "매일 드리는 번제(단12:11)" 즉 매일 예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예배시간이 1시간 남짓하거나 나머지 1시간 24분을 집 또는 직장에서 제단까지 오고가는 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출근 전에 새벽 예배를 볼 수 있게 하고 퇴근 후에 저녁 예배를 볼 수 있게끔 승리제단에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질문: 직장인들도 매일 예배를 볼 수 있게끔 편리를 제공해주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느낄 수 있어 감동입니다.

답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는 육천년만 마귀가 사용했던 피입니다. 이렇게 더러워진 대로 더러워져 있는 피를 하나님께 축복하기에 기독교인들 중에 부자가 많은 것도 십일조를 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십일조의 헌금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져준다면, 십일조의 시간은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 역곡제단 : (032)343-9981-2 대구제단 : (010)6530-7909 순천제단 : (010)3661-9025 양평제단 : (010)2945-8254
수원제단 : (031)236-8465 마산제단 : (055)241-1161 정읍제단 : (010)8628-2758 Sydney : (006)0415-727-001
안성제단 : (031)673-4635 진주제단 : (055)745-9228 군산제단 : (063)461-3491 橫濱祭壇 : (045)489-9343
부산제단 : (051)863-6307 진해제단 : (055)544-7464 대전제단 : (042)522-1560 神戶祭壇 : (078)862-9522
영도제단 : (010)6692-7582 영천제단 : (054)333-7121 청주제단 : (010)5484-0447 下關祭壇 : (0832)32-1988
김해제단 : (010)7518-9981 사천제단 : (055)855-4270 충주제단 : (010)9980-5805 大阪祭壇 : (06)6451-3914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